

**언제** 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되고 말았다. 휘황찬란한 상가의 조명, 번쩍 거리는 고급승용차, 화려하다 못해 으리으리한 음식 점들의 실내장식…… 이런 분위기에 따라 어느새 우리도 한달에 한두번쯤이라도 작은 차라도 몰고 가족들과 함께 멀리 나가 외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가정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말았다. 집에서는 애들 엄마가 시집을 때 가져 온 10년도 훨씬 넘은 쪼그마한 냉장고와 가스렌지를 이번에는 좀 그럴듯하게 크고 멋있는 것으로 바꾸자고 졸라댄지도 벌써 오래이다.

어찌 생각하면 동네 아줌마들에 대한 체면도 있고, 또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가족들이나 스스로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남들 하는 만큼은 또 남들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은 갖추고 싶기도 하다.

최근 신문지상에는 우리 사회에 널리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 풍조에 대한 우려와 개탄의 소리가 높은 것 같다. 사계의 전문가들이 나와 과소비형태를 꾸짖고 지나친 사치와 낭비는 삼가하자고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어떤 것이 과소비이고 어떤 것이 정상소비인지 구분하기는 쉬운 것 같지는 않다. 아주 극단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월1회 외식하는 것은 과소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다. 결국 이런 경우는 자기의 분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고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능력이 있다면 매일 외식해도 과소비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보통사람의 정서와 일치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에너지문제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필요한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자는데 대하여는 누구나

## 유가인상과

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얼마만큼이 꼭 필요한 것인지 는 보는 사람에 따라,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소득이 높아지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비난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많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 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있는 지 벌써 4달이 지나고 있다. 전쟁이 날려면 확 나든지, 아니면 깨끗이 없었던 일로 하고 끝내든지 해야 할텐데 이도 저도 아닌채로 피차간에 으르렁거리기만 하다가는 또 조용해지고 또 갑자기 심각해지는등 제3자로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덕분에 애꿎은 우리나라 같은 석유수입국만 엉거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국내에너지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금년 9월까지의 통계로도 전년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1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지난 8월 페르시아만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기민하게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기사용을 억제하고 주유소영업시간도 밤 12시이후부터 다음날 4시까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곧 바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흔적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우리 모두가 페르시아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이제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이 정도의 에너

# 에너지절약

金 東 源

(동력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

지는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실치 않다.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값이 실제 가격에 비해 상당히 싸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국제 원유가격의 오름을 반영해서 국내유가를 상당폭 인상하였다고 한다. 물론 산유국은 제외하고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배럴당 25달러가 넘는 원유를 18달러 수준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TV를 통해 페르시아만에 무언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영향이 있어도 먼 훗날 어느 땐가 다소 영향을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제2단계 에너지소비절약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지난해에 발표했던 종합대책에 강도를 높이는 여러 시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겨울철 실내온도도 18℃~20℃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사우나, 실내수영장등 물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소에 대한 주1일 휴일제 실시, 차량의 경제속도유지, 공동주택에 대한 열량계부착 의무화 확대, 전기사용제한 강화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권장을 통한 소비절약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우리 모두의 불편이 증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이다. 겨울철에 18℃는 춥지 않느냐, 건전한 스포츠로서 수영은 오히

려 장려해야 하지 않느냐, 열량계를 부착하면 그만큼 건축비가 늘어나 아파트가격만 높이지 않느냐, 등등.....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다소의 불편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설혹 모든 사람이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도, 또는 위기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에너지위기 상황의 일보직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에너지소비절약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없이 에너지를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간다고는 하지만, 우선 당장 눈앞의 불편은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종래의 습관대로 편리하고 풍족한(물론 비용은 더 들지만) 생활을 하려 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에너지사용처가 각각이고 사용기기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점에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건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정인 것이다. 얼마전에 휘발유와 등유에 대한 가격인상이 단행되었다. 전 유종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람에게는 겨우 두개 유종에 대한 소폭(?)의 인상에 불만스러웠을 것이고, 금년중 유가를 안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에너지가격이 너무 낮아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번의 유가인상이 에너지 과소비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설혹 내가 운전하는 차의 기름값이 한달에 1~2만원 더 든다고 하더라도 말이다.♣